

제 6 회 기 술 교 류 행 사

■ 개요

■ 세미나

- **쌍용건설 KMS 미르넷 Plus의 구축의의와 활용**
발표자-박승철 기술개발부 CM팀 차장
- **“유비쿼터스 IT”의 도전과 건설업계의 응전**
발표자-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 **안전관리 사례 발표(품질안전부)**
발표자-손상열 품질안전부 부장

■ 수상작

건축부문	기술명	수상자
최우수 기술상	유로폼 전용 안전 작업발판 개발	김상현 사원
우수 기술상	팽이구조 시공	장근수 과장
장려 기술상	토목옹벽 공법 변경	임상진 대리
격려상	영구배수 집수 시스템 개선 방안	이기환 차장

기전부문	기술명	수상자
최우수 기술상	기류 유인팬을 이용한 실내공기 순환시스템 개선	배동지 과장
우수 기술상	전선 손상 방지용 리버디스크(Ruber-Disk)	김진택 대리
장려 기술상	리버패드(Ruber-Pad)	
	대형 평형의 온수 분배기 및 배관 방법 개선	정현태 차장

토목부문	기술명	수상자
최우수 기술상	해양관로 Pulling공법 개선	이형균 대리
우수 기술상	수질 샘플링 방법 개선	천상욱 대리
장려 기술상	교량(ILM)시공시 배합설계 및 양생 방법 개선을 통한 고품질확보와 원가절감	고중삼 대리

:: 특집기획 기술교류행사 - 개요

개선하고, 개발하고, 연구한 노력이 바로 건설기술 쌍용의 저력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3월 31일 김석준 회장과 관련 임원 및 부서장, 현장소장, 신기술 제안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6회 기술교류행사를 개최했다. 기술교류행사는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신기술, 신공법 개발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기술개발의욕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기술개발부장의 경과보고로 시작해 오전에는 CM팀의 'KMS 소개', 기전부 전기팀의 '전력신기술 소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하원규 박사의 '유비쿼터스와 차세대 정보통신 혁명 세미나' 등 내·외부 인사의 강리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건축, 토목, 기전부문에서 출품된 총 55건의 신기술, 신공법 개발 사례 중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총 24건이 경합한 결과 '유로폼 전용 안전 작업 발판 개발(김상현 사원/건축)'과 '해양관로 Pulling공법 개선(이형균 대리/토목)', '기류 유인팬을 이용한 실내공기 순환시스템 개선(배동지 과장/기전)'이 각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0건이 수상작으로 확정됐다. 동대문 디오트 현장은 8건을 출품해 최다 제안 현장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수상

자들이 받은 상금은 총 3,500만원에 달한다.유비쿼터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이날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김 회장은 총평을 통해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이번부터 포상 내역을 상향 조정했다"며, "출품된 우수한 신기술과 신공법이 영업 전략 수립과 원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전파 및 공유 시스템을 체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력이 큰 변수가 되는 SOC 민자사업의 경우 기술자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해 의사 결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서와 현장에서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회 기술교류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슬림폼 공법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방법'이 특허 출원되는 등 지금까지 기술교류 행사를 통해 발표된 신기술들이 건설신기술 지정(1건), 특허 등록(4건), 특허 출원(6건), 실용신안등록(2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